



# 월드컵 토고전 '예방주사' 맞았다

태극전사, 세네갈 평가전 1대1 무승부  
김두현 선제골...포백수비 불안 여전

'토고전 예방주사 확실히 맞았다'  
태극전사 대표팀은 23일 밤 8시 서울 상암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독일월드컵축구대회 본선 G조 첫 상대인 토고의 '맞춤상대' 세네갈과의 평가전에서 아쉽게 1-1로 비겼다.  
이로써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은 아드보카트호 부임 이후 8승3무3패를 기록했다.  
아드보카트 호는 이날 박지성과 김남일을 벤치에 앉혀두고 스리톱으로 설기현(울버햄프턴), 안정환(위스부르크), 이천수(울산)가 출격했다. 미드필더에는 공격형에 김두현(성남), 수비형에 이호(울산), 백지훈(서울), 수비라인에는 김동진(서울), 김진규(이와타), 최진철(전북), 송중국(수원)이 포진했다.  
1.5군으로 구성된 세네갈은 평가전 상대로 부족하다는 여론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유연한 개인기를 이용한 빠른 템포와 기습 침투로 아드보카트호를 위협했다.  
전반3분까지 일방적 공격을 퍼붓던 세네갈은 전반 6분 라마네 바리가 날린 원발 땅볼 슈팅이 골 포스트를 살짝 비껴갔고, 16분에는 프레데릭 망디가 왼쪽 측면을 완전히 뚫고 크로스를 올리는 등 한국 수비진을 흔들었다.  
전반 25분에도 한국은 바리에게 오른쪽 측면이 허물어져 위기를 맞았고, 41분 문전 프리킥 상황도 위협했다.  
미드필드를 장악하지 못한채 패스 연결마저 세밀하지 못한 한국은 전반 17분 문전

혼전중에 흐른 볼을 안정환이 뉴아제 원발 터닝슛으로 연결했으나 수비수 몸에 걸려 무위에 그쳤다. 전반 31분에 이천수의 날카로운 브리키드 골포스트를 아슬아슬하게 외면했다.  
전반을 0-0으로 끝낸 한국은 후반 들어 송중국을 빼고 조원희를 투입해 반전을 노렸으나 부실한 허리는 포백수비 불안으로 이어졌고 공격력 약화마저 초래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아드보카트는 22분 이천수를 빼고 박주영을 투입하며 승부에 강한 집착을 보였으나 27분까지 미드필드와 수비라인이 무너지며 여러차례 실점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세에 몰리던 한국은 후반 22분 박주영, 29분 정경호가 투입되면서 공격력이 살아났고, 결국 선제골이 터졌다. 후반 29분 정경호의 패스를 받은 박주영이 페널티지역 가운데서 김두현에게 공을 건넸고 아크 정면에서 김두현이 이를 오른발로 슈팅, 세네갈의 골네트를 흔들었다.  
하지만 한국의 포백수비라인이 무너지며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했다. 세네갈은 35분 무사 은디야에가 아크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한국 골망을 갈라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한국은 김두현과 김진규 등이 왼쪽과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며 추가점을 노렸으나 더 이상 세네갈의 골문을 열지 못하고 무승부를 기록했다.  
/최재홍기자 lion@kwangju.co.kr



2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진 축구 국가대표 한국과 세네갈의 평가전에서 후반 중반 골을 넣은 김두현이 선수들과 좋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정환 주가 '상한가' 잉글랜드 구단들 큰 관심

'테리우스' 안정환(30·위스부르크)의 주가가 독일 월드컵축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치솟고 있다. 영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키이스

포츠는 23일(이하 한국시간) 에이전트 톰 샌더스의 말을 인용, "잉글랜드 구단들이 안정환의 영입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BBC가 스코틀랜드의 하츠에서 안정환을 영입하려 한다고 보도한 지 하루만에 더해진 반가운 소식이다. 샌더스는 "하츠 구단과는 2주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감독이 확정되지 않아 상

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잉글랜드 3개 구단에서 위스부르크가 요구하는 5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줄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 중 한 팀은 안정환과 계약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정환의 거취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팀은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비롯한 레딩, 왓포드 등이

며 맨체스터(2부)리그에는 리즈 유나이티드, 선덜랜드 등 더 많은 게 샌더스의 설명이다. 샌더스는 "안정환은 잉글랜드,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싶어한다"면서 "그냥 독일에 머물 수도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길 원한다. 안정환이 독일 월드컵에 참가하기 때문에 그를 지켜볼 구단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